

『표충사제영』 시첩의 가치와 목판본의 편제

이대형
동국대학교
ahjoong11@gmail.com

- I. 표충사의 연원과 『표충사제영』
- II. 시첩의 양상과 가치
- III. 목판본의 편제와 변이
- IV. 맺음말

요약문

『표충사제영(表忠祠題詠)』은 송운(松雲) 대사의 5대 법손인 남봉(南鵬)이 사명당 유정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1738년에 당대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청하여 받은 시문을 모은 시첩과 그것을 토대로 간행한 목판본을 말한다. 이렇게 특정인을 위한 시집이 간행된 것은 우리 한문문학사에 있어서 유일하다.

수록된 시들 가운데는 차운한 시가 월등하게 많다. 원운(元韻)으로 사용된 시는 오언 율시의 경우 5편으로 이식(李植)과 이정구(李廷龜)·이수광(李睟光)이 동일하게 ‘師’운으로 지은 율시들이고, 칠언율시의 경우 조유수(趙裕壽)의 ‘溟’운, 이병연(李秉淵)의 ‘苾’운, 이천보(李天輔)의 ‘年’운으로 지은 시들이 해당된다. 오언율시를 지은 이들은 송운 대사 당시의 인물들이고, 칠언율시를 지은 이들은 남봉 대사 당시의 인물들이다. 차운한 시 가운데는 대체로 오언시보다 칠언시 즉 당대 인물의 시에 차운한 경우가 많고, 칠언시 가운데는 조유수의 溟운에 차운한 시들이 가장 많다.

『표충사제영』 시첩을 바탕으로 한 목판본이 여러 차례 발행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편차가 발생하였다. 발행양상을 보면, 1738년에 남봉의 스승인 연초(演初)가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778년에 사명당의 9세손 의민(毅旻)이 추가로 보입하면서 발행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편집을 달리하면서 발행되었다. 여러 간행본들 가운데 1738년 간기를 지닌 『밀주표충사제영』이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어 가장 앞서고 이후의 것들은 정확한 순서를 판별하기 어렵다.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은 1778년 간기를 지닌 『표충사제영록』이다.

주제어

송운(松雲), 남봉(南鵬), 연초(演初), 의민(毅旻), 밀주표충사제영

I. 표충사의 연원과 『표충사제영』

표충사(表忠祠)는 송운(松雲)¹⁾ 대사 즉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을 추모하기 위해 대사의 출생지인 밀양에 세운 사당이다. 1610년 송운 대사가 입적한 이후 유정이 생전에 지은 백하암(白霞庵)에서 밀양 지역의 선비들과 승려들이 봄과 가을에 송운 대사의 제사를 지냈다. 1714년(숙종 40)에 밀양 선비들의 뜻에 따라 군수 김창석(金昌錫)이 조정에 계(啓)를 올려 제수(祭需)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고, 사당을 다시 세워 송운 대사와 함께 그의 스승인 서산 대사 그리고 임진왜란 때 금산 싸움에서 전사한 기허당(騎虛堂)의 영정을 모셨다. 1738년(영조 14)에는 송운 대사의 5대 법손인 태허당(泰虛堂) 남봉(南鵬)²⁾이 크게 중창하고자 송운 대사의 행적을 갖추어 조정에 올렸고, 이에 임금이 교지를 내려 중수하도록 하였다. 『표충사제영』은 당시 서울로 온 남봉 선사가 유명한 이들

1) 송운(松雲)은 유정(惟政, 1544~1610)의 자호. 시첩들에서는 대개 ‘송운’으로 칭하였다.

2) 남봉(南鵬)은 스스로 송운 대사의 5대 법손이라고 칭하였는데, 현전하는 『佛祖源流』와 『四溟堂支派根源錄』, 『四溟堂僧孫世系圖』를 볼 때 사명당 문파가 아니라 鞭羊彦機(1581-1644)의 5대 법손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남봉의 스승 연초는 松雲門派의 제4세인 釋霽 밑에서 배운 뒤 다시 鞭羊 문파의 志安에게도 배웠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연초는 특정 문파만을 고집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벗어났고 남봉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 이철현, 「사명당 유정의 후대법맥」, 『불교학보』 4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8. pp.219-239 참고.

을 찾아다니며 송운의 공훈을 기리는 시문을 청하여 모은 시첩과 그것을 토대로 간행한 목판본을 말한다. 남봉은 조정 대신들의 지원을 받아 송운의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엮어 『분충서난록(奮忠紆難錄)』을 발간하고 영당비(影堂碑)를 세우는 등 송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벌였으니 『표충사제영』 또한 그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송운이 입적한 해인사에서 마련한 사원은 훼손되고 밀양 표충사가 사액사당으로 남게 되었다. 1839년에는 표충사가 협소하다 하여 유정의 8세 법손인 월파당(月波堂) 천유(天有)가 예조의 승인을 받아 재약산 영정사(靈井寺)로 옮기고 절 이름을 표충사(表忠寺)로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³⁾

현재 밀양 표충사(表忠寺)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들은 몇 차례 조사된 바 있다. 26종 203판에 해당하는 목판에 대해 목록과 서지사항이 1987년에 조사되었으며⁴⁾, 다음해에 목판과 고문서, 불교전적 등의 목록과 서지사항이 조사되기도 했다.⁵⁾ 그리고 2014년에 『밀양표충사유공록(密陽表忠祠有功錄)』을 비롯한 등록(騰錄)과 완문(完文) 등의 고문서가 번역되어 출간되었다.⁶⁾ 이와 같이 소장 문헌들이 대체로 조사되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표충사제영』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것이 없다.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는 『표충사제영』 시첩의 표지에는 ‘共十’이라고 오른 쪽 하단에 적혀 있으므로 총 10권이었을 텐데 현재는 8권만 남아 있다. 『표충사제영』 시첩의 시를 총괄하면 140인의 160편 가량이 되는데 대개는 1738년에 남봉의 부탁에 따라 지어진 것들이다. 이 시첩을 토대로 여러 차례 목판으로 간행되어 전하는데, 목판본에 대한 몇몇 해제는 이루어졌으나 여러 목판본간에 내용의 출입이 있고 편집 순서도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

3) 표충사의 연혁에 대해서는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한 재조명」, 『불교학보』 제5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8, pp.125-146 참고.
 4) 박상국, 『전국사찰소장목판집』, 문화재관리국, 1987, pp.367-374.
 5) 채상식, 「밀양 表忠寺 소장자료 조사 (1)」,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12, pp.293-311.
 6) 김종민·이철현·조규환, 『밀양 표충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II. 시첩의 양상과 가치

임진왜란 참전을 전후로 하여 사명당에 대한 기억이 청고한 시승(詩僧)에서 강개한 승장(僧將)으로 변화했다고 하는데⁷⁾ 『표충사제영』의 시들은 승장으로 서의 공훈을 찬양한다. 『표충사제영』 시첩은 따로 순서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근 간행된 책에⁸⁾ 의거하여 권수를 표시한다.

1. 시첩 개관

1.1 권수별 양상

『표충사제영』 시첩 1권은 총 49면에 서(序)와 기(記), 발(跋), 찬(讚) 그리고 시들이 실려 있다. 처음에 실린 글은 『분충서난록(奮忠紆難錄)』에 대해 1738년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작성한 서문이다. 거기에는 송운 대사의 법손 남봉이 송운 대사의 일기 『골계도(滑稽圖)』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에 제명을 ‘분충서난록’이라 고치고 신유한(申維翰)에게 글을 교정하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송운 대사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물음에 “우리나라에는 따로 보물이 없으니, 장군의 머리가 바로 보물이다.”라는 답변을 하여 적을 두렵게 했다는 것과 일본에 잡혀간 수천 명의 백성들을 구출해 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시첩에 들어 있는 많은 시들의 주요 내용이 된다.

『표충사제영』의 시 제목들은 대체로, ‘시축에 차운하여 송운 대사의 법손인

7) 정출현,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년, pp.241-277 참고

8)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 6) 표충사시첩』,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년.

남봉에게 준다’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권에 있는 이최원(李最源)과 심의경(沈宜慶)의 시는 다른 시들이 대체로 1738년에 지어졌다는 점과 구별된다. 이최원은 1793년에 밀양부사로 재직하던 중에 시첩을 보고 시를 지었다. 심의경(沈宜慶)은 1783년 생으로 1805년에 진사 급제를 한 인물이므로 대체로 1738년에 지어진 다른 시들과는 시기상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이처럼 이 시첩의 시들이 대개 1738년에 남봉의 요청에 따라 지어진 것들이지만 이후에 첨가된 경우들도 여러 편 있다.

『표충사제영』 2권은 총 50면에 시 35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천보(李天輔, 1698~1761)⁹⁾가 지은 칠언율시가 실려 있고¹⁰⁾ 이후에는 이천보의 시에 차운한 시 25편이 실려 있다. 그 외에는 이병연(李秉淵, 1671~1751)¹¹⁾의 시에 차운한 경우가 4편, 이식(李植)의 시에 차운한 경우가 1편 있을 뿐이다.

『표충사제영』 3권은 총 32면으로 여기에는 전부 조유수(趙裕壽, 1663~1741)¹²⁾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칠언율시 16수를 수록하고 있다. 이 중에 동몽교관(童蒙敎官) 임박(任璞)이 쓴 시는 남봉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재약사(載藥寺)¹³⁾에서 사명 대사의 진영을 본 경험을 살려 1738년에 조유수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칠언율시이다.

『표충사제영』 4권은 총 40면에 20명이 지은 21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서몽징(徐夢徵)이 지은 오언율시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칠언율시이다. 이식의 시를 차운한 서몽징과, 두 편의 시 가운데 한 편을 이천보의 시에 차운한 정래교(鄭來僑)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병연의 시를 차운하였다.

9) 이천보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박수천, 「晉菴 李天輔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6권, 한국한시학회, 2012, pp.333-357 참고.

10) 이천보의 칠언율시 「표충사에 대해 지어 부치다 [寄題表忠祠]」는 다음과 같다. “慷慨雲壇誓衆年 袞裳擊楫薩州船 海濤鯨息譚經地 佛日塵清倚劔天 異教未應無義士 中興終亦賴高禪 時危不負西山鉢 一體同祠儘宿緣”

11) 이병연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김형술, 「槎川 李秉淵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2010, pp.71-115 참고.

12) 조유수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나중면, 「后溪 趙裕壽의 文藝의 趣向과 題畫詩」, 『동양고전연구』 15, 동양고전학회, 2001.6 참고.

13) 재약사(載藥寺)는 재약산의 사찰을 뜻하며 표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충사제영』 5권은 총 74면에 36명의 시 37수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에 실린 김상집(金尙濬)의 오언율시와 조이창(趙爾昌)의 의고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칠언율시로서 이병연의 시에 차운한 6수를 제외하면 모두 조유수의 시에 차운하였다.

『표충사제영』 6권은 표제 없이 총 19면에 12명의 칠언율시 13수를 수록하였다. 주로 조유수의 시에 차운한 것들이 실려 있는데, 시를 지은 시기가 늦은 것과 승려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승려로서는 묘향산 육탄(陸坦, 18세기)과 월하 계오(月荷戒悟, 1773~1849)가 지은 시들이 있다.

『표충사제영』 7권은 표제 없이 총 25면에 14명의 칠언율시 14수를 수록하였다.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조유수의 시를 차운한 3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병연의 시를 차운하였다.

『표충사제영』 8권은 표제가 없이 14면에 7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칠언율시가 3수, 칠언절구가 1수, 오언율시가 5수이다. 오언율시는 이정구(李廷龜)의 시를 차운한 이중언(李重彦)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의 시를 차운하였고 오언율시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전하는 상태의 『표충사제영』 시첩은 순서가 흐트러져 있다. 중간에 편집을 다시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듯하다. 시첩 2권 17면의 첫 행은 ‘右次十灘宗兄’이라고 되어 있으니 오른 편에 시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없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관계있는 것은 1권 18면에 있는 이우신(李雨臣)의 시다. 1권 18면에 이어 2권 16면이 있어야 ‘右次十灘宗兄’이 제대로 이해되고, 2권 16면 하단에 부기된 내용 또한 1권 20면의 시에 대한 설명이므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편집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시첩에 낙장이 발생한 경우도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7권 9면의 경우 오른쪽은 허좌(許佐)의 시고, 왼쪽은 최홍간(崔弘簡)의 시인데 둘 다 절반을 잃어버린 채로 좌우로 함께 붙어 있어서 혼란을 준다. 1권 25면의 경우 오른쪽은 현감 이중언(李重彦)의 오언율시와 칠언율시인데 완결되지 않았고 그 왼쪽 면에 있는 “선조의 문집 통해 그 자취를 알았으니 [曾從先集得師蹤]”로 시작하는 칠언율시는 이정구의 ‘蹤’자 운에 차운한

밀양부사 이최원(李最源)의 시이다. 이최원의 시는 제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유실되었고 이중언의 칠언율시 나머지 부분은 8권 3면에 동떨어져 있어서 혼란을 준다.

1.2 운자별 특징

이식의 오언율시 「사신으로 일본에 가는 승병장 송운을 전송하며 [送松雲僧將使日本]」는 1604년 선조의 명을 받들어 일본으로 떠나는 송운 대사를 전송하며 쓴 시이다.¹⁴⁾ 이 시는 홍만중(洪萬宗)이 1672년경 엮은 시화집 『소화시평(小華詩評)』에 게재되었는데, 송운 대사는 이 시를 얻고서 여행길이 외롭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다.¹⁵⁾

이수광(李睟光)과 이정구도 이식과 마찬가지로 수련의 운자를 ‘師’로 하는 오언율시를 지어 송운을 송별했다.¹⁶⁾ 『표충사제영』에서 오언율시를 보면 이수광과 이정구의 시들에 차운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식의 시에 차운하였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보면 이식보다는 이수광의 오언율시가 인구에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수광의 시는 제명이 ‘일본으로 가는 송운을 송별하며 [送松雲之日本]’로 되어 있는데 문집에는 ‘일본으로 가는 사명 산인에게 주다 [贈四溟山人往日本]’으로 되어 있다. 『대동야승』에 실려 있는 17세기 문헌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에는 “오산(五山) 차천로(車天輅)가 그 시를 보고 붓을 놓았으며, 사람들이 회자하여 전하였다.”¹⁷⁾고 하였다. 『재조변방지』는 이전 기록을 정리한 것이니, 회자되었다는 기록은 민인백(閔仁伯, 1552~1626)의 문집 『태천집(苔泉集)』 권2 「용사일록(龍蛇日錄)·계묘(癸卯)」에 있고,¹⁸⁾ 차천로

14) 시는 다음과 같다. “制敵無長算 雲林起老師 行裝沖海遠 肝膽許天知 試掉三禪舌 何煩六出奇 歸來報明主 依舊一筇枝”

15) “惟政亦能詩, 見詩喜曰 得此而吾行不孤矣.” 원주용, 『조선시대 한시 읽기(하)』, 아담북스, 2010 참고.

16) 이수광의 시는 아래 주석에 소개되고, 이정구의 시는 다음과 같다. “昨過三清洞 仍逢雲老師 塵衣掛蘿幌 淨社依荒祠 暎壑鐘初動 苔壇屐屢移 重遊莫遲緩 山月惜將虧” 글자는 달라지지만 세 사람의 시들은 모두 ‘支’운에 속한다.

17) “車五山天輅見之閣筆。人皆瞻炙而傳之。”

18) “朝廷恐其生變, 遣僧松雲往. 芝峯以詩贈之曰, 盛世多名將, 奇功獨老師, 舟行魯連海, 舌聘陸生辭, 變詐夷無

가 붓을 놓았다는 기록은 이수광의 『지봉류설』 권13 「동시(東詩)」에 보인다.¹⁹⁾ 『표충사제영』 시첩에 실린 시들에서도 이수광의 시를 찬탄한 구절이 보인다. 이병연이 “위태로운 시절에 허리의 칼 잡은 것은, 지봉의 증별시에서 모두 표현하였네 [時危手撫腰有劍, 悉詠芝峰贈別章]”라고 하였고, 신사헌(申思憲)도 “대사의 공을 밝힌 지옹(이수광)의 시를 세 번 읽는다오 [三復芝翁闡發章]”라고 하였다.

원운이 된 이병연의 시 「응천 표충사에 대해 지어 부치다 [寄題癡川表忠祠]」의 마지막 구절은 운자가 ‘章’이라서 차운시들의 경우 대개 남봉이 유정을 위해 시문을 받으러 다닌 행위를 언급하게 된 경우가 많다. 경기감사 조석명(趙錫命)의 시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可見鵬師尊尙意 남봉이 존송하는 마음을 볼 수 있으니
洛中文士遍題章 도성의 문사들이 두루 글을 지었다네

조유수는 김창흡(金昌翕)이나 최창대(崔昌大)·이덕수(李德秀) 등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로 당대 시명이 자자했다.²⁰⁾ 그의 시를 차운한 경우에는 마지막 운 ‘腥’자 때문에 차운시를 지을 당시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 근심을 토로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원경하(元景夏)의 경우 “지금 중원에 비린내 자욱한데 [祇今遼薊暗腥腥]”, 남태량(南泰良)의 경우 “슬프게도 중원은 아직 비린내 나네 [惆悵中原尙穢腥]”, 강박(姜樸)의 경우 “중원에 왕생하여 비린내 쓸어 버리소서 [往生中土掃腥腥]”라 하였다. ‘腥’자와 관련하여 이렇게 중원을 언급한 시들은 병자호란의 패배와 함께 오랑캐로 여기는 만주족이 중원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이현조(李顯祚)의 시구 “대사가 또 병자년에 있지 못함이 안타까우니, 백 년간 중원에 여전히 먼지가 비릿하구

厭, 羈縻事恐危, 腰間一長劍, 今日愧男兒. 人皆傳誦.”

19) “僧惟政號四溟山人, 倭奴自壬辰後不敢通和, 至癸卯來請信使. 人皆憤惋, 而朝廷恐其生變, 遣山人往試賊情. 山人遍求別章于縉紳間, 余贈之曰, (시 생략). 車五山見之閣筆.”

20) 나종면(2001), 68면 참고.

나[悵不令君又丙子, 百年燕薊尙塵腥]”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시들이 지어진 18세기 전기에는 청나라에 대해 폄하하는 시각이 아직 팽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국은 ‘비린내’라는 표현과는 달리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농업생산성과 소비수준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²¹⁾ 위에 예를 든 시구들은 18세기 후반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잡기 이전에, 정묘·병자호란의 상처를 되새기는 인식들이 사명당을 기리는 시에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2. 인식적 특징

2.1 표충사에 대한 오해

『표충사제영』에는 당대에 명망 있던 이들을 두루 망라했다고 할 만큼 많은 이들의 시가 담겨 있다. 그 내용은 사명당에 대한 찬양인데, 시첩에 시를 수록한 이들은 나라에 공을 세운 송운 대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표충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시에 담기도 했다. 이병연이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그래서 재차 시를 지어 이전의 오류를 수정했다. 이병연이 표충사에 대해 처음 시를 지은 때는 1738년 2월이고 재차 시를 지은 것은 그해 5월이다. 2월에 지은 시는 『표충사제영』 5권에 실려 있고 5월에 지은 시는 『표충사제영』 4권에 실려 있다. 다시 시를 지은 이유를 5월에 지은 시 뒤에 밝혀 놓았으니, 사명당이 일본에 가서 후한 대우를 받은 것이 중요하고 광재우와 함께 제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서 바로잡는다고 했다. 2월에 지은 시 「밀양 표충사에 대해 시를 지어 보내다 [寄題密州表忠祠]」는 서문에 “송운 대사는 흥제당-나라에서 내린 당호-에서 제사지내니, 광재우 장군과 함께 제사를 받는다. [松雲大師弘濟堂-卽賜號-所享郭將軍連祀]²²⁾”라고 하

21) 로버트 B.마르크스, 윤영호 번역, 『다시 쓰는 근대세계사 이야기』, 코나투스, 2007, p.164 참고.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충사제영』 목판본 19면에는 이 시의 제목이 ‘寄題密州表忠祠松雲大師弘濟堂-卽賜號’라고 되어 있으나 ‘송운대사’ 이하는 序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판각할 때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였고 이러한 오류는 시구에서도 표현되었다.

龍象含悲涉左溟 대사께서 비원을 품고 동해를 건넜으니
祇今京觀屹封鯨 지금까지 왜적 시체 무덤이 우뚝 하네²³⁾
摧魔東沱華夷服 마귀를 꺾어 동국에서 중국과 일본이 경복하고
棄衆西號嶽瀆靈 중생 버리니 서쪽에서 산천 신령으로 부르네
恭靜錫名禪衍饗 공손하고 청정하여 고승이라 부르면서 잔치 열고
雲臺畫像客星并 공신각의 영정들이 나그네와 함께 하네
鄂公學道還聯卓 악공²⁴⁾이 도 배우니 도리어 나란한 향탁에
丹荔黃蕉定不腥 붉은 여지와 노란 바나나²⁵⁾ 정녕 비리지 않다네

미련에서 광재우가 송운과 나란히 제향을 받는다고 표현하였으니 이는 사실이 아니다. 5월에 지은 시 「응천²⁶⁾ 표충사에 지어 보내다 [寄題凝川表忠祠]」는 다음과 같다.

萬里扶桑跡渺茫 일본의 만 리 여정은 아득하지만
中興麟閣一慈航 중흥시켜 공신되고 자비로운 항해하니
吸來片滴曹溪洞 조계 골짜기의 물을 마시고 와서
噴滅遙空禍慧長 하늘의 재앙 해성에 뿜어 소멸시켰네
南國荔蕉應特饗 남쪽에서는 향기로운 제수 흠향하고
西山衣鉢已同堂 서산대사 의발이 같은 사당에 있네
時危手撫腰有劔 위태로운 시절에 허리의 칼 잡았으니
重詠芝峰贈別章 지봉이 준 증별시²⁷⁾를 거듭 읊노라

23) 고래[鯨]는 『표충사제영』에 줄곧 등장하는 어휘인데, 일본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로 申坪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섬 오랑캐는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고래 같았네 [島夷無奈似奔鯨]”

24) 악공은 당 태종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워 鄂國公에 봉해진 울지경덕인데, 여기서는 광재우를 비유하였다.

25) 붉은 여지 노란 바나나는 祭需를 말한다. 韓愈의 「柳州羅池廟碑」에 “여지는 빨갛고 바나나는 노란데, 고기와 채소 곁들여 자사의 사당에 올리네. [荔子丹兮蕉黃，雜肴蔬兮進侯堂]”라고 하였다.

26) 응천은 밀양 일대를 흐르는 밀양강으로 여기서는 밀양을 말한다.

내가 예전에 표충사에 대해 시를 지어 사명 대사의 법손인 남봉에게 주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사명 대사가 임진왜란 때 행한 공적을 들었는데, 마땅히 바다를 건너가서 후한 대우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또 홍의장군 광재우와 함께 제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시 이 글을 지어 바로잡았다. 남봉은 존조尊祖(사명 대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면서 글을 받으러 다닌다고 천 리를 왕복하였으니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또 시를 지어 주려고 하였으나 마침 병에 걸려 병석에 있었으므로 후일을 기다렸다가 보내고자 한다. [余向已爲表忠祠題詠，授其法孫南鵬以歸，而更聞松雲壬辰之蹟，當以泛海招款爲重，又實無紅衣連餼之事，改爲此篇以正之。鵬也血誠尊祖，往復千里，其志可尚，又欲以詩贈之，適病腸伏枕，留俟後送云爾.]

무오년(1738, 영조 14) 단오 며칠 후 한산 이병연 [戊午端陽後韓山李秉淵]

이병연은 1738년 2월에 시를 지을 때 표충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홍제당은 조재호(趙載浩)가 쓴 「영남 밀주부 영취산 표충사 홍제당기(弘濟堂記)」에 따르면, “유정의 스승 보제존자(普濟尊者) 휴정과 그 동문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를 유정의 예에 의거하여 똑같이 제사를 올리게 해달라고 정승을 통하여 임금께 아뢰어 윤허를 받고서 표충사를 밀양 영취산 삼강동에 중건하고는, 세 대사의 유상(遺像)을 받들어 모시고 당액(堂額)을 ‘홍제(弘濟)’라고 지어서 걸었다.”²⁸⁾ 하였으니, 광재우는 관계가 없다. 사실 광재우는 밀양 옆의 현풍(玄風) 출신으로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밀양 출신의 사명당과 동향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예조판서 송성명(宋成明)의 기록 등에서도 확인된다.²⁹⁾

27) 지봉의 증별시는 사명당이 조선인 포로 송환 문제로 1604년(선조 37)에 일본에 갈 때 지봉 이수광이 지어준 시를 말한다. 본 시집에 있으며, 또 『지봉선생집(芝峯先生集)』 권3에 「일본으로 가는 사명 승려에게 주다 [贈四溟山人往日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8) “以惟政之師普濟尊者休靜，及其同門閩梨騎虛堂靈圭，依惟政例，一體享祀事，因相臣白于上。蒙可。乃重建其所謂表忠祠于密州靈鷲山三綱洞，將以奉三大師遺像，揭堂額曰弘濟。”

29) 송성명은 “송운은 대사의 또 다른 호이다. 장군 광재우·판서 손인갑·승지 노개방 세 사람은 모두

이병연의 시 ①은 조유수의 시를 차운한 것이므로 그의 오해는 조유수의 시 「송운 대사의 문집을 보고 감회가 있어 그 끝에 적는다 [閱松雲大師遺集, 有感而題其端]」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³⁰⁾

溟師眞箇蹈東溟 사명 대사가 참으로 동해바다 건너니
 龍象之行伏鱗鯨 고승이 행차하여 고래를 복종시켰네
 禪偈勸休倭殺伐 왜적에게 살생 금하라는 가르침 내리고
 慈航載返我生靈 자비로운 항해로 우리 백성 싣고 왔네
 西山碧鉢家傳密 서산 대사의 의발을 은밀히 전수받고
 南師紅衣廟享并 영남 홍의장군과 함께 사당에 모셔졌네
 今代松雲何不覺 지금 송운 같은 분을 어찌 찾을 수 없나
 長髻海沸爛魚腥 영남 바다 끓어올라 비린내 가득한데

문집에는 이 시를 지은 때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시첩에는 무오년(1738) 청명 후 3일째 되는 날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조유수가 3월에 지은 것이라면 이것을 차운한 이병연의 시 ①이 “戊午春仲”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서 의문이다. 조유수의 시가 원운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송성명 등이 ‘次后溪韻贈之’라고 하여 후계 조유수의 시에 차운했음을 명시했으므로 확정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조유수의 시에서 ‘홍의장군’ 즉 광재우와 같이 사당에 배향되었다고 표현하였고 이 구절이 이병연을 비롯하여 이덕수와

대사의 고향 사람이며 동시에 의병을 일으켰다고 한다. [松雲師之一號. 郭將軍孫判書盧承旨三人, 皆師之同里人, 一時起義云.]”라고 했는데, 광재우가 동향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표충사제영』 목판본을 간행할 때는 ‘郭將軍孫判書盧承旨三人’이 ‘孫判書盧承旨孫孝子三人’으로 바뀌었다. 손효자는 ‘손약해(孫若海)’를 가리키며, 이들의 충효와 노개방의 부인 이씨의 烈行을 기리기 위해 선조가 충효사를 세우고 지명을 ‘三綱洞’이라 했다고 한다.

30) 이 시가 조유수의 문집 『后溪集』 권5에는 제목이 「고 사명 대사의 문집에 쓰다 [題古大師四溟集]」로 되어 있다. 첫 구절의 ‘溟師’가 문집에는 ‘四溟’으로, 마지막의 ‘長髻’가 문집에는 ‘機張’으로 되어 있다. 長髻는 포항이고 기장은 부산 쪽 지명으로, 장기현은 의병들이 알바다에서 왜적을 물리친 적이 있으므로 적시했을 텐데, 기장은 일본군의 초기 진격로였고 왜성을 축조하여 지속적으로 주둔한 곳이라는 점에서 시의 문맥에 더 적합하므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기장에 대해서는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機張 지역의 전황과 위치」,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2006.10, pp.132-161 참조.

송인명 등이 시를 차운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2.2 불교에 대한 인식의 편차

임진왜란을 맞아 승군으로 참여한 활약에 힘입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졌으니 사명당은 승군으로 활약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불교를 폄하하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 그것이 확인된다. 송운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불력(佛力)이 아니라 왕령(王靈)의 보살핌 덕택이라거나 송운이 승려지만 실제로는 유자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는 언급들이 그러하다.

윤봉조(尹鳳朝)는 『분충서난록』 발문에서, 서산 대사와 송운 대사의 행적의 의병장 조현(趙憲)이나 고경명(高敬命)과 나란하다고 칭찬하면서 특히 송운 대사의 경우 ‘안으로는 유교를 품고 밖으로는 선교를 드러내었다 [內儒而外禪]’고 평가하였다. 이는 “대사의 의롭고 장렬한 공적을 불력(佛力)과 선교(禪教)의 도움으로 돌렸던 대다수³¹⁾의 평가와 다른 점이다. 충효의 관계를 떠나고 살생하는 것을 금한다는 점에서 불교는 유교와 다른데 임진왜란이라는 계기로 자신을 드러내어 위대한 업적을 수립하였으니, 수염을 깎지 않은 송운의 초상화를 보면 유교 정신을 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³²⁾ 이들은 송운 대사의 행위가 불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유교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봄으로써 불교를 폄하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임금과 아버지가 처한 위급함을 구해내기 위해 달려간 것은, 대사가 또한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으니, 어찌 그 사이에 부처의 힘을 용납한단 말인가.”³³⁾라고까지 하였다. 장령 송질(宋瓚)은 “의병 모집은 애초 불력의 도움 받은 것 아니고, 마귀 복종시킴도 끝내 선왕의 영령 덕분이라네 [募旅初非資佛力, 伏魔終是仗王靈]”라

31) “其文詞皆蒼蔚炳烺, 闡揚無餘恨, 而獨其語意旨歸, 多以師義烈勳績, 爲若有佛力禪教之助者” 이조참판 尹鳳朝의 발문.

32) “佛氏棄君臣去父子…夫以傳神之在眞像者, 而不去其髻髻, 師之微意已似有可見矣.” 위의 글.

33) “以之赴君父之急者, 師亦有不能自任, 況焉容佛力於其間哉” 위의 글.

고 하여 송운의 공적이 불법보다는 선왕의 영령이 보살펴준 덕택이라고 함으로써 유자로서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대사성 오명신(吳命新), 초계군수 이현승(李顯升), 진사 신원(申瑗), 예조참의 조상명(趙尙命)의 시도 이와 유사하다. 이와 달리 부제학 서종옥(徐宗玉)이나 김창린(金昌麟)·신택중(申宅中)처럼 유불에 대해 균형 잡힌 의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비교된다.³⁴⁾

한편 좌선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송운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여³⁵⁾ 임진왜란에 대처한 불교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분충서난록 발(奮忠紓難錄跋)」에서, 송운은 나라가 위급할 때 칼날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켰으니 충절과 윤리가 독실하여 ‘진정한 여래’라 해도 좋고 ‘우리 도학(吾道)의 사람’이라 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도들은 헛되어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이나 ‘마른 똥막대기[乾矢橛]’ 같은 망령된 화두에서 구하지 말고 이 『분충서난록』에서 구해야 한다³⁶⁾함으로써 좌선하는 쪽을 비난하였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는 내시교관 이천보가 1738년에 기록한 「표충사기(表忠祠記)」를 들 수 있다. 휴정이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위하여 도성에 돌아와서는 자신은 나이가 많으니 군사의 일을 송운에게 맡기고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송운 대사가 무리를 통솔하여 업적을 이루고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화의(和議)를 이루었다고 행적을 기록하였다. 사직하고 돌아간 휴정과 나라를 위해 화의를 이끌어낸 송운을 비교하여, 휴정은 경(經)에 가까워 그 절개가 높고 송운은 권(權)에 가까워 그 공훈이 넓다고 했다. 휴정은 몸을 물려 도를 지켰고 송운은 몸을 굽혀 중생을 제도하였는데 각각 그 의의가 있으며, 국가를 위한 충심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일생을 여행과 문필 활동으로 보내며 방대한 작품을 남겨서 국문학사에서

34) 서종옥의 해당 시구는 “彌難人知由佛力，格頑吾見藉皇靈”이고, 김창린의 시구는 “廣濟群生元佛教，驅除妖穢是王靈”이고, 신택중의 시구는 “凜凜威儀憑佛力，堂堂師旅仗王靈”이다.

35) “世言釋家有二教，其主坐禪者，或以師不純於其教，而微有軒輊。” 위의 글.

36) “然則如松雲者，雖謂之眞如來，可也。又雖謂之吾道中人，亦可也。彼之欲觀心見性者，毋徒求之於狗子矢橛之妄，而卽此一部奮忠紓難錄者而求之，亦足矣。” 송인명의 발문.

거론되는 권섭(權燮)의 시도 보이는데, 그는 “수많은 불상 앞에서 예를 올리니, 저 산에서 헛되이 적적한 인연 맺으리라 [多少佛前叉手拜, 彼山虛作寂空緣]” 하여 불교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운명(趙運命)의 칠언율시는 제목에서, 표충사에 직접 가서 송운 대사의 영정을 보고 지었다고 하였으니, 남봉의 부탁을 받고 송운 대사의 글이나 송시를 보고 지은 경우와는 구별된다. 더구나 ‘절반의 선사가 짓는다 [半禪稿]’고 하였으니, 지은이 조운명이 불교를 상당히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시첩의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에 특정인을 위해 시집을 제작한 경우는 『표충사제영』이 유일하다. 그것도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당대 명망 있는 이들을 두루 망라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표충사제영』은 남봉이 두루 다니면서 얻은 시찰(詩札)들을 엮은 시첩이며 또한 이를 목판으로 간행한 다수의 목판본을 지칭하기도 한다. 시첩은 무엇보다 유일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다수의 목판본은 『표충사제영』이 활발하게 유통되었음을 알려준다.

시첩에 수록된 글들은 대개 『분충서난록』³⁷⁾이나 『표충사제영』 목판본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지은이들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고 시를 지은 시기와 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시첩의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표충사제영』 4권에 실린 신유한의 ‘茫’운의 시는 1738년 8월에 서울의 여관 수연재(隨緣齋)에서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목판본과 문집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문집에는 ‘溟’운의 시를 함께 신고³⁸⁾ 제목을 ‘嶺南僧南鵬携其祖師松雲事蹟, 乞詩都下, 得公卿大人題墨已多. 余於是宿緣, 次軸中韻’이라고 하였는데, 시첩을 보면 이 제목은 ‘茫’운의 시에 해당하고, ‘溟’운의 시에는 ‘鵬

37) 신유한 엮음, 이상현 옮김, 『송운대사분충서난록』,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38) “憶曾砲矢簇東溟。禪伯披雲搏怒鯨。鼓角旋旌孫武法。袈裟巾拂釋迦靈。掀髯豹穴孤忠仗。瀝血龍墀兩疏并。見說摧魔有般若。金剛寶劍豈容腥。二風沙霧海血茫茫。天遣如來泛一航。譙席春回蠻日朗。炎坑雨灑慧雲長。國將豺虎成唇齒。人不蛟魚返室堂。寄謝叢林諸聖跡。莫從虛寂玩經章。” 『靑泉集』 권2.

上座袖其法祖松雲師舊蹟，乞詩都下，得公卿大人題墨已多。余於松雲所爲奮忠錄，與有薄業，感其卓烈，因次軸中韻’이라는 제목이 따로 있다. 이미 ‘溟’운으로 지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茫’운의 시를 지을 때는 숙연(宿緣)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시첩 1권에 실린 정기안(鄭基安)의 글은 『분충서난록』과 『표충사제영록』³⁹⁾ 목판본에 표충사 기문들과 나란히 실려 있어서 기문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가 지은 시는 뒤쪽에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시 말미에는 시를 지은 시기가 적혀 있다.⁴⁰⁾ 정기안의 문집 『만모유고(晩慕遺稿)』 권1에는 「표충사에 대해 써서 보내다 [寄題表忠祠]」라는 제목으로 기문이 서(序)로 되어 있고 시가 적혀 있다. 문집에는 시를 쓴 시기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시첩을 통해 시기를 알 수 있다.

이식과 이정구의 시, 그리고 이 시들에 차운한 후손들의 시들이 실려 있다는 점도 이 시첩의 특징에 속한다. 판결사(判決事) 이우신(李雨臣)이 지은 시 「선조의 시에 삼가 차운하여 송운 대사의 법손 남봉에게 주다 [伏次先祖韻，贈松雲法孫南鵬]」는 이정구가 송운의 시에 차운한 시와 송운이 입적한 지 10년 후에 지은 시 두 편에 대해 각각 차운한 것이다. 「월사 선조께서 송운 대사에게 부친 시를 삼가 차운하여 시를 지어서, 남봉 사미에게 주다 [敬次月沙先祖寄松師韻書贈鵬沙彌]」는 이우신의 아들인 교리(校理) 이정보(李鼎輔)가 이정구의 시에 차운한 오연율시와 칠연율시 한 편 씩이다. 이정보는 시에서 이정구와 송운의 사림으로부터 3대에 이르는 사림의 정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였다.⁴¹⁾ 8권에 시가 수록된 현감 이중언(李重彦)은 1732년에 밀양수령을 지낸 바 있는데 역시 선조 이정구의 시에 차운한다고 하였다.

이식과 그의 증손자인 경상감사 이기진(李箕鎭)의 경우도 위와 같은 부류에 속하고, 남봉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늙어서 시를 짓지 못하니 증조고 조희일(趙希逸, 1575~1638)의 칠언고시 「송운 대사가 동해로 출항할 때 주다 [贈松雲師浮海]」를 써준 형조판서 조정만(趙正萬, 1656~1739)의 경우도 그러하다. 남

39) 1778년 발행. 오사카부립 나가노시마도서관 소장.

40) “戊午孟秋下澣晚慕子”

41) “삼대 걸친 교분이 시문으로 남아 [三世交情留款唾]”

봉은 당대 유명한 이들을 포함하여 송운 대사와 교유한 이들의 후손을 찾아가 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선조의 유묵을 확인하고 감회에 젖은 이들은 남봉이 밀양 표충사를 중건하고 사액을 받는 일에 적극 동조하였을 테고, 이는 송운 대사의 사당 문제로 해인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밀양 표충사가 조정의 승인을 받게 되는 데도 음양으로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III. 목판본의 편제와 변이

시첩을 토대로 목판본으로 간행된 『표충사제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헌들에 대해 대략적인 소개만 되어 있을 뿐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간행본들에 대해 아직까지 정리된 바 없다.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준으로 삼을 만한 큰 변화는 1738년에 연초(演初, 1676~1750)가 처음 간행한 이후에 1778년에 9세 법손 의민(毅旻)이 이후에 수집된 자료들을 보완하여 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간기(刊記)를 지닌 것끼리 묶어서 그 편제와 변이 상황을 밝힌다.

1. 1738년 간기본의 편제

규장각에는 1책 45장에 시문 140여 편을 실은 『밀주표충사제영(密州表忠祠題詠)』(古 3421-1)과 1책 52장으로 160명의 시 164수를 실은 『표충사제영』(奎 5602)이 소장되어 있다.⁴²⁾ 『표충사제영』에는 남봉이 차운한 시 4수와 함께 권미(卷尾)에 「비국감결관(備局甘結關)」이라 하여 1738년에 사명당에게 내린 공문서가 실려 있다.⁴³⁾

1.1 초기본 『밀주표충사제영』의 형태

42) 강문식, 「밀주표충사제영 해제」, <http://kyujanggak.snu.ac.kr> 참조.

43) 『표충사제영』 해제, <http://kyujanggak.snu.ac.kr> 참조.

규장각 소장 『밀주표충사제영』은 판심에 장차(張次) 표기를 운자 즉 ‘溟·茫·年·師’와 함께 표기하여⁴⁴⁾ 구분한 시 부분과 「밀주표충사기문부록(記文付錄)」으로 되어 있다. 운이 바뀔 때마다 첫 행에 ‘密州表忠祠題詠’이라는 내제를 표기하고 원운시를 필두로 하여 해당 운의 시를 실었다. 조유수 시를 차운한 溟운의 시들이 분량이 가장 많아서 앞에 있고, 이후 이병연 시의 ‘茫’운, 이천보의 ‘年’운, 그리고 ‘師’운에 차운한 시들이 실려 있다. ‘師’운에는 이식과 함께 이정구·이수광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게재되어 있다.

師운으로 지은 이들은 茫운의 시를 같이 지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현감 이최연(李最彦)과 현감 이중언(李重彦), 이세원(李世愿), 이기상(李麒祥) 등의 경우 師운의 시와 茫운의 시가 나란히 편집되어 있다. 이형만(李衡萬)의 경우는 ‘年二’에 年운의 시가 실린 다음에 이어서 茫운의 시가 실려 있다. 『표충사제영』시첩에는 年운의 시는 2권에, 茫운의 시는 7권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형만은 溟운의 시도 지었는데 이것은 ‘溟 初八’에 실려 있다. ‘溟 八’이 있으므로 ‘溟 初八’은 후에 첨가된 판목이라 하겠고, 처음엔 누락된 이형만의 溟운시가 이때 보완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표충사제영』의 ‘溟 初八’에는 현감 장석윤(張錫胤)의 시도 있는데 이 간행본에는 삭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溟 初八’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보다 이후에 첨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溟 六’에 낭호(郎湖) 병조참의 신치운(申致雲)의 시가 있는데 52장본 『표충사제영』을 제외하고 다른 간행본에는 다 삭제되어 있다. 신치운은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이 있은 직후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경상북도 흥해군(興海郡)에 유배되었다가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1755년 이후에 간행한 것에는 이 시를 삭제한 것이다. 52장본 『표충사제영』에는 시는 게재하고 이름에 먹칠을 하였고 호는 삭제하였다. 먹칠은 1755년 이후에 하였을 것이고, 호는 다른 이의 경우에도 『밀주표충사제영』에만 있고 다른 간행본에는 대체로 삭제되

44) 국립중앙도서관 해제에는 張次로 표기된 ‘茫·師’를 각수의 표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 규장각 해제에도 ‘茫·師’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어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밀주표충사제영』이 앞선 판본이고 이후에 호부분을 삭제하고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의 경우도 그러하다. 『밀주표충사제영』의 내제 ‘密州表忠祠題詠’을 이후에 ‘密州’를 삭제하고 간행했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밀주’라는 지역명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밀주표충사제영』의 溟운은 15면에서 끝나는데 52장본 『표충사제영』을 포함한 다른 간행본들에는 17면까지 있다. 그러므로 ‘溟十六’과 ‘溟十七’은 후에 첨가된 것일 수 있다. 師운은 장차(張次) 표기가 혼란스럽다. ‘師二’가 두 번 나오고 ‘師三’, ‘師初五’, ‘師四’, ‘師初七’, ‘師五’로 이어진다. 『표충사제영』은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師二’ 장차 표기가 보이지 않고 ‘師四’, ‘師初五’, ‘師六’, ‘師初七’, 그리고 마지막 장도 장차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밀주표충사제영』의 혼란스런 장차 표기를 『표충사제영』에서 수정한 양상이다. ‘師初五’에는 “월사 선생이 송운에게 주다 [月沙先生贈松雲]”라는 설명과 함께 “은거한 지둔 승려를 찾기 위해 [爲尋支遁隱]”로 시작되는 오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정구의 시가 아니라 박이장(朴而章, 1540~1622)의 시 「명수사를 지나며 유정 상인을 찾다 [過溟水寺尋惟上人] 2수⁴⁵⁾ 가운데 하나인데 잘못 수록되었다. ‘師初七’의 내용은 ‘師四’ 왼쪽 면에 실린 시의 제목인데 뒤에 삽입되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에는 모든 면에 장차 표기가 되어 있으니 시 부분은 ‘表忠祠題詠’이고 기문 부분은 ‘表忠祠記文’이다. 다른 간행본에 있는 ‘終1’과 「비국감결관」 등은 들어 있지 않다. 다른 간행본에는 삭제된 부분이 여기는 온전히 남아 있고 체제도 정연하므로 이것이 초기 간행본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師운의 경우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므로 온전하지는 않다. 간행 시기는 1738년에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溟初八’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보다 후대에 첨가된 것이므로 확정하지는 못한다.

45) 『용담집(龍潭集)』 권1.

1.2 52장본 『표충사제영』의 변이

규장각에 소장된 52장본 『표충사제영』(奎 5602)도 ‘溟·茫·年·師’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다. 溟은 사이에 ‘年 八’이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 ‘年 八’은 다른 간행본에는 삭제된 원종통덕랑(原從通德郎) 이태해(李泰海)의 율시가 인쇄되어 있다. 『영조실록』에는 여항인(閻巷人) 이태해가 1748년에 투서 사건으로 진도로 도배(徒配)를 간 기록이 있다. 이 사건 때문에 이태해의 시가 삭제되었는데 여기에는 남아 있는 것이다.

‘年 二’에는 ‘이규채(李奎采)’의 시가 실려 있는데 다른 본에는 ‘규채(奎采)’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여기에는 온전히 남아 있다. ‘年 六’에는 이익섭(李益燮)의 시가 실려 있는데 다른 본에는 삭제되었다. ‘師 八’에는 심정관(沈廷觀)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름이 지워져 있다.

‘師 八’ 이후에는 ‘表忠祠記文付錄’이라고 하여 이천보의 「표충사기」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表忠祠記文二’에 이천보의 글 후반부가 와야 하는데 ‘表忠祠記文三’에 해당하는 부분을 ‘表忠祠記文二’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결과 ‘表忠祠記文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장차 표시를 삭제하였다. 기문 뒤에는 ‘終一’과 「비국감결관」이 있는데 ‘終二’가 없어서 미흡하다.

마지막 장에는 연초(演初)가 1738년에 간행한다는 간기가 있다. 약간 어긋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질서있게 편집되어 있고 다른 간행본에는 지워진 글자들이 여기에는 남아있으니 1738년 판본을 토대로 1748년 이전에 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1.3 55장본 『표충사제영』의 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55장 목판본 『표충사제영』(한古朝21-314)은 ‘溟·年·茫·師’ 순서로 해놓았다. 『밀주표충사제영』에서는 年운이 7장인데 여기는 1장이 늘어 茫운과 장수가 같아졌고 그래서인지 年운이 茫운 앞으로 이동하였다. 師운의 경우 ‘師 初二’와 ‘師 二’가 있고,⁴⁶⁾ 이후 다시 ‘師 一’이라고 하여 ‘師 八’까지 이어지고 이후 ‘有功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중간에 ‘師 初

五’와 ‘師 初七’이 있어서 판각 시기가 다른 판본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溟 一’이 시작되기 이전에 맨 처음에는 판심제를 ‘表忠祠題咏’으로 한 두 면이 있고, 이후 ‘密州表忠祠題咏’으로 한 두 면이 있고, 이후에 판심제는 ‘表忠祠題詠’으로 하고 편차 표기를 ‘三’ ‘終一’ ‘終二’ ‘溟 初八’ ‘溟 初八二’라고 한 면들이 편집되어 있다.⁴⁷⁾ 판심제가 세 가지 양상이므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판각된 것을 조합한 것이라 하겠다. 이 간행본은 1738년에 연초(演初)가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는데 ‘師 初二’에 있는 진사 조재준(趙載俊)의 시는 시첩에 1754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 목판본의 간행 시기가 1754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1778년 간기본의 확장

『표충사제영록(表忠祠題咏錄)』이라는 표제로 된 목판본에는⁴⁸⁾ 1778년에 9세 법손 의민(毅旻)의 발문이 있다. 일본에 있는 64장본 『표충사제영록(表忠祠題咏錄)』은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제를 보면, 표충사기문들을 수록하고서 ‘表忠祠題詠’이라는 제목 아래 ‘溟·年·茫·師’의 순서로 시들을 수록하였다. 표충사 소장 55장본 『표충사제영록』은 ‘溟·師·年·茫’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다.

64장본 『표충사제영록』에는 판심제 없는 두 면에 1778년에 의민이 쓴 발이 있고, 이후 ‘表忠祠’라는 판심제로 「비국감결관」이 한 면, 마지막에는 1738년

46) ‘師 初 2’에는 밀양부사 默溪 趙集命의 「題表忠祠」와 진사 趙載俊의 「題表忠寺」가 실려 있는데 둘 다 ‘師’운이 아니라는 점에서 왜 이곳에 편집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師 2’에는 경주부윤 趙明謙의 시 「謹次軸中澤老韻」 1편이 있는데, ‘師’운이다.

47) 이러한 편차 표기는 『표충사제영록』에도 보인다. ‘溟 七’ 이후에 ‘溟 初八’ ‘溟 初八二’ ‘溟 八’ ‘溟 九’로 이어진다. ‘溟 七’과 ‘溟 八’ 사이에 두 장을 추가로 보입한 것이다. ‘茫 八’ 이후에는 ‘終 一’ ‘終 二’라고 하여 溟운의 시를 보입하였다. 두 목판본을 비교하면, 『표충사제영록』의 판목을 『표충사제영』에서 재활용하면서 편집 순서가 헝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48) 밀양 표충사와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표충사 소장은 1책 54장이고, 일본 소장은 1책 64장이다. 표충사 소장본은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에서, 해외 자료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제명을 ‘밀양표충사제영록’이라 하였으나 표제가 ‘표충사제영록’이므로 표제를 따른다.

연초(演初)의 발이 있다. 1738년 간기본을 기본으로 하여 1778년에 사명당의 9세손 의민이 몇 편의 글을 더 추가하여 발행한 것이다. 의민이 영천 영지사(靈芝寺)에서 조덕신(曹德臣)을 만났는데 그가 조상인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이 사명당에게 보낸 시찰(詩札)을 보여주어서, 그 시들을 『표충사제영』에 보입한 것이다. 여기 수록된 조호익의 시들 중 3수는 『지산집』에 전하고 3수는 전하지 않는다.

『표충사제영록』은 대체로 질서있게 편집되어 있으나 오류도 보인다. 우선 ‘溟十七’ 왼쪽 반곽이 오른쪽 반곽과 이어지지 않는다. 여기 오른쪽 반곽 첫 행에는 한익주(韓益周)의 시 마지막 구절 “五傳枝”가 와야 시가 완전해진다. 그러나 이 판본에서는 목사 신만(申晩)과 교리 정익하(鄭益河)의 年운시와 함께 남유용(南有容)의 시가 일부 실려 있다. 이 부분은 ‘年二’의 왼쪽 반곽에 해당한다. ‘溟十七’에 이어 ‘年一’이라고 하여 주서 이규채(李奎采)⁴⁹⁾의 시로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年二’인데 현재는 ‘年一’로 보인다. 이 판본의 편집자는 ‘年一’로 알고 편집했을 텐데 표충사에 소장되어 있는 『표충사제영록』에는 ‘年二’로 명시되어 있고 ‘年三’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師운이 시작하기 전에 ‘終一’과 ‘終二’라고 하여 조유수와 이병연·이천보·이식의 시에 각각 차운한 남봉의 시와 조유수의 시에 차운한 엄한명(嚴漢明)·고세유(高世瑜)·김창린(金昌麟)의 시가 있는데 위치가 자연스럽지 않다. ‘終’이라 했으니 師운이 끝난 이후에 놓여야 하는데 앞서 놓여 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현감 이최언(李最彦)의 시가 있는 면이 뒤로 가야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師四’의 첫 행에 있는 ‘이세원(李世愿)’이라는 이름이 지금 상태로는 시문과는 동떨어져 있다.

『표충사제영록』의 ‘師一’ 오른쪽 반곽은 이본들 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상감사 이기진(李箕鎭)과 부제학 김진상(金鎭商)의 시가 실려 있는데 ‘경상감사 이기진’이라고 저자를 표기한 행부터 김진상 시의 제목까지 4행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표충사 소장본 등에는 삭제되어 있다. 김

49) 목판본에는 ‘主書李’만 남아 있고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시첩에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진상 시의 제목은 ‘吾友嶺南伯李君範’이라고 하여 이기진의 자(字)가 명시되어 있어서 같이 삭제된 듯하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건대 이기진은 경상감사 이후에 공조판서와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특별히 잘못을 범한 일은 보이지 않는데 왜 이름이 삭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이기진 이름과 김진상 시의 제목이 삭제된 것이 후대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箕鎭’만을 삭제한 『표충사제영록』과 규장각 소장 52장본 『표충사제영』이 중간 시기에 해당하고 이름이 온전히 남아 있는 『밀주표충사제영록』이 제일 앞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師八’에는 심정관(沈廷觀)의 시가 있는데 표충사 소장본과 52장본 『표충사제영』에는 이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판목에 있어서는 『표충사제영록』이 52장본 『표충사제영』보다 시기가 앞서는 것이 된다.

IV. 맺는말

『표충사제영(表忠祠題詠)』은 송운 대사의 5대 법손 남봉(南鵬)이 사명당 유정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당대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청하여 받은 시문을 모은 시첩과 그것을 토대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특징인을 위한 시집이 간행된 것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시첩은 본래 10권이었는데 현재는 8권만 전한다. 시첩은 시를 적은 이들의 다양한 필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목판본에 수용되지 않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원본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표충사제영』 1권에는 이 시첩에 대한 서발문 등과 함께 시를 실었고 이후는 모두 시문인데 독자적으로 지은 경우도 있지만 차운시가 월등하게 많다. 원운으로 사용된 시는 오언율시와 칠언율시로 나뉘는데 오언율시는 ‘師’운으로 지은 택당 이식과 월사 이정구·지봉 이수광의 시가 해당한다. 칠언율시로는 후계 조유수의 ‘溟’운, 사천 이병연의 ‘茫’운, 진암 이천보의 ‘年’운 시가 해당된다. 오언율시를 지은 이들은 송운 대사 당시의 인물들이고, 칠언율시를 지은

이들은 남봉 당시의 인물들이다. 차운한 시들은 대체로 오연시보다 칠언시가 많으니 대개 당대 인물들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표충사제영』에 수록된 전체 160수 정도의 시 가운데 오연시의 경우 이식의 시에 차운한 경우가 9수 정도로 가장 많고, 칠언시의 경우 조유수의 ‘溟’운시에 차운한 것이 47수 정도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이병연의 ‘茫’운시에 차운한 것이 43수, 그리고 이천보의 ‘年’운시에 차운한 것이 27수 정도가 된다. 차운한 현황을 권별로 구별하자면, 2권의 경우 대개 이천보의 시를 차운하였고, 3권과 5권·6권은 조유수, 4권과 7권은 이병연, 8권은 이식의 시를 차운한 경우가 많으며, 6권은 시를 지은 시기가 늦은 것과 승려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충사제영』 시첩을 바탕으로 한 목판본이 여러 차례 발행되면서 조금씩 변이가 발생하였다. 1738년에 남봉의 스승인 연초(演初)가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778년에 사명당의 9세손 의민(毅旻)이 추가로 보입하면서 발행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편집을 달리하면서 발행되었다. 간행된 순서는 1738년 간기를 지닌 『밀주표충사제영』이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어 가장 앞서고 이후의 것들은 정확한 순서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후에 간행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은 1778년 간기를 지닌 『표충사제영록』이다. 목판본들은 서로 편집의 차이는 있어도 대체로 ‘溟·茫·年·師’운의 순서로 해당 시들을 배열하였는데, 동일인이 다른 운의 시를 지었을 경우에는 같이 수록하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 간행되는 과정에서 시를 지은 이의 이름이 삭제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삭제되었는지 살펴본다면 『표충사제영』의 변이가 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 (사지자료집 6) 표충사시첩,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 분충서난록, 이상현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 表忠祠題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忠祠題詠錄,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
- 表忠祠題詠錄, 표충사 소장.
- 밀양 표충사, 김종민·이철현·조규환,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2. 단행본

- 원주용, 『조선시대 한시 읽기(하)』, 아담북스, 2010.
- 로버트 B.마르크스, 윤영호 번역, 『다시 쓰는 근대세계사 이야기』, 코나투스, 2007, p.164.

3. 논문

- 강문식, 『밀주표충사제영(密州表忠祠題詠)』 해제, <http://kyujanggak.snu.ac.kr>
-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機張 지역의 전황과 위치」, 『지역과 역사』 19, 부정역사연구소, 2006.10, pp.132-161
- 이철현, 「사명당 유정의 후대법맥」, 『불교학보』 4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8. pp.219-239.
- 이철현, 「밀양 표충사의 연혁에 대한 재조명」, 『불교학보』 제52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9.8, pp.125-146.
- 조영록, 「송운대사분충서난록 해제」, 『송운대사분충서난록』,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 정출헌,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pp.241-277.
- 채상식, 「밀양 表忠寺 소장자료 조사(1)」, 『한국문화연구』 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12, pp.293-311.

The Value of Album of Poems *Pyochungsa-jeyoung* and Formation of Wood Block

Lee, Dae Hyung
Assist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yochungsa-jeyoung (表忠祠題詠) is the names of an album of poems and, at the same time, of the block books based on the album of poems, which were written in honor of Venerable Samyeongdang Songwoon (四溟堂 松雲). In 1738, Venerable Nam bung, the fifth-generation Dharma descendant of Samyeongdang Songwoon, asked the bureaucrats and intellectuals to write poems for Samyeongdang Songwoon to admire his great achievement. He collected these poems and printed them from wood blocks. It is unique in Korea literary history that an album of poems was made for a specific person.

Most of the poems are written borrowing or using the same rhymes as in some other poems. The original poems of which rhymes were borrowed by others are only five by Lee Sik (李植), Lee Jeong-gu (李廷龜), and Lee Su-Gwang (李睟光) in the category of pentasyllabic octets (五言律詩), and three by Cho Yoo-soo (趙裕壽), Lee Byung-yeon (李秉淵), and Lee Cheon-bo (李天輔) in the category of heptasyllabic octets (七言律詩). Among those poems written in the borrowed rhyme, heptasyllabic octets poems outnumber pentasyllabic octets poems, and among heptasyllabic octets poems, those that used Cho Yoo-soo's '溟' are dominant in number.

Pyochungsa-jeyoung wood blocks were made based on the album of poems *Pyochungsa-jeyoung* several times. In 1738 Yeoncho(演初) printed them first and in 1778 Yimin(毅旻) printed again with additional poems. Other than these, they were

printed a few more times with different editing. Now, the extant *Pyochungsa-jeyoung* of various versions show different table of contents from each other. Among those versions, *Milju-Pyochungsa-jeyoung*(密州表忠祠題詠) in 1738 is the first with primary form while the most voluminous edition is *Pyochungsa-jeyoungrok*(表忠祠題詠錄) in 1778. It is difficult to decide the order of publication of other versions.

Keywords

Samyeongdang Songwoon(四溟堂 松雲), Nambung(南鵬), Yeoncho(演初), Yimin(毅旻), *Milju-Pyochungsa-jeyoung*(密州表忠祠題詠)

2017년 10월 18일 투고
2017년 12월 10일 심사완료
2017년 12월 15일 게재확정

